

살아가는 힘, 용서하는 힘

사이토 료

그 날 나는 전철에서 내려 자전거를 타고 서둘러 학교에 갔다. "아!" 하는 순간 차에 치어 머리부터 땅에 곤두박질 쳤다.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없어서 달려온 후배에게 "내 다리 있어?" 라고 물었다. 손도 움직이지 않아서 후배에게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급차로 하마마츠 의료센터에 갔다.

집중 치료실에서 나는 목이 고정되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창문도 없었고 햇볕이 들지 않는 방. 보이는 것은 많은 링거 줄이었다. 여전히 다리의 감각이 없었다. 부모님께 몇 번이나 "내 다리 있어!? 보여 줘!" 라고 했다.

그날 밤 병세는 급변해서 호흡을 못하게 되었다. 눈 앞이 지지직 거리는 텔레비전 정지 화면 같은 상태가 되었고 귀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고독을 느꼈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아.....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긴급 처치로 의사가 기관을 절개하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 2008년 10월 28일이었다.

나는 목(경추)이 골절되었고 손발이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도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못하게 되었다. 입으로 먹을 수 없었고 코에 관을 넣어서 위에 유동식을 흘려 넣을 뿐이었다. 소변도 대변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서 기저귀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저 천장을 보며 자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괴롭고 굴욕적이었다. "이런 생활이 평생 계속되는

것인가. 죽는 편이 낫다! 하지만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비참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고 살아갈 기력도 잃었었다.

초등학교4학년 때부터 사고 전까지 야구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당시 현립(도립) 하마마츠 상업 고등학교의 야구부 2학년이었던 나는 여름 대회가 끝나고 선배들이 은퇴한 후에 주전 포수가 되어 내년에 행해질 큰 대회에 출전하려고 분발하고 있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할머니의 다섯 명이며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불교 가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의 치유에 의지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종교에 바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변화가 없었고 종교 역시도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감만이 커질뿐이었다.

가해자는 27살의 남자였다.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분노뿐이었다. "나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고... 게다가 알게 된 사실은 또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그의 자동차 보험 기한이 만료되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사죄하러 왔다. 누나는 "료의 인생을 돌려줘! 사고 당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 놔! 평생 같은

괴로움을 겪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며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고 아버지는 "병원에 올 시간이 있으면 일해서 돈을 가져 와!" 라고 하며 쫓아냈다. 가해자의 할아버지도 찾아 왔지만 어머니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며 역시 쫓아냈다.

4 개월 후 효고현에 있는 간사이로우사이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재활 치료 시설을 완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닥터 헬기로 이송되었다. 어머니와 누나는 그 병원에서 가까운 집을 빌려서 매일 병간호를 해 줬다. 병원을 바꾼 후 인공호흡기를 목에서 코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하지만 의사는 나에게 "사이토 군, 당신의 몸은 지금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5개월간 여기서 재활 치료를 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갑시다" 라고 선고했다. 기쁨도 한 순간이었다. 그 선고를 듣고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재활치료는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직업 치료사를 통해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다. 목을 일으키는 것뿐인 일도 오늘은 1초, 그 다음날은 2초, 이렇게... 나는 계속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의 자판을 킁으로 조작하는 훈련도 받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타는 외출 훈련으로 병원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대회가 행해지는 동경의 구장에 갔다. 아무도 없는 구장의 그라운드에서 두 번 다시 야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통감했다. 야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뛰어 보고 싶은 이 구장에서 나도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다. 나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

사고를 당하고 난 뒤 5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4일.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절망적인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다. 야구부의 선배가 그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그들의 목사님과 목사님의 두 딸과 함께 효고현의 병원에 와 주셨다. 그들은 크리스천이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여사분이었으며 그녀는 예수님께서 난치병을 치유해 주셔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하셨다. 품위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료 군, 이 세계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인간을 농락해서 병이나 사고, 싸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원망하며 비판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마귀에게 유일하게 승리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여져 있는 책이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가면 반드시 료

군은 치유될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단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료 군의 몸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마가복음1장25절~27절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요한일서3장8절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서는 성경책을 읽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해 주셨다.

마가복음5장25절~34절

【그 중에는 십이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 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20장9절~12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삼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 일어난 일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왠지 그것은 믿을 수 있었다. 그 장소에 있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마가복음10장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목사님께서서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보통 인간은 못합니다. 더구나 료 군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요. 가령 상대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대로입니다. 미워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마귀를 미워하고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므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것이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

에베소서4장31절~32절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6장14절~15절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일인지 갑자기 눈물이 하염 없이 흘렀다. 지금까지 들어 온 종교나 신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나에게 느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치유를 받을지 지금까지 손목에 차고 있던 마귀의 염주에 의지해서 살아갈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신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살아서 마귀를 내쫓고 반드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바로 손발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버렸다.

목사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성경말씀을 주셨다.

마가복음16장17절~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 날부터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을 세 번 체험하게 되었다.

2009년 여름 대회. 입원중인 상태로 나는 고3이 되었다. 야구는 못하지만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나는 대회의 추첨회에 참가하고 싶었다. 의사에게 부탁하니 처음엔 무리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 후 내가 신칸센을 탈 수 있게 준비되었고, 집의 개축과 자동차의 개조도 신속히 이루어져 추첨회에 맞춰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생각했다. 첫 기적이었다.

그해 여름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교통사고로 꿈을 잃은 야구 청년"으로서 소개되었다. 그 때에 당시 그 프로그램의 캐스터이며 지금은 프로 야구 팀의 감독인 구리아마 히데키 감독께서 나를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셨다.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

그 후, 효고현에 있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약 한 달정도가 지났을 때, 나와 부모님은 병원에 와주셨던 목사님께서 추천하시고 있는 "포도나무"라는 그룹의 성경공부 모임(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요한일서4장10절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1년 만에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선생님과 친구도 도와 주었기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 졸업할 수는 없었다. 한 교과의 학점을 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 년 더 공부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자퇴를 결정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심한 욕창이 생겼고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때에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바로 욕창이 치유되었고 퇴원할 수 있었다. 두 번째의 기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던 나에게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졸

업 인정 시험(검정고시)을 보면 어떻겠냐고 조언 해주셨다.

그 후 나는 시험을 준비했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시험장에서는 나에게 시험관 두 명이 붙어서 한 명은 문제를 보여주고 한 명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답안지에 써 주었다. 한 번에 합격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느꼈다. 세 번째의 기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은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대학교라면 나도 대학생이 되어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쁨으로 채워졌고 2012년에 입학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스포츠 선수로 입학해서 야구만 해 온 나는 1학기 시험에서 거의 학점을 딸 수 없었으므로 좌절할 뻔했다. 그것을 헤아린 목사님께서 "료 군은 마지못해 하고 있지요? 어떤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성경책)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행하는 것! 완전히 치유되어서 일어섰을 때에 힘들지 않도록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 5년 동안 이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2017년 3월에 졸업했다.

어느 날 밤에 내 호흡기의 마스크의 벨트가 빠졌다. 항상 곁에 있던 어머니가 막 욕실에 목욕하러 들어가신 때였다. 나는 숨이 막히게 되어 발버둥쳤다.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 이라고 몇 번이나 외쳤다. 그러자 어머니가 달려왔다! 살아났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알려 주셨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공호흡기가 빠졌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사고도 많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살아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께 감사!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다.

성경공부 모임인 포도나무에서 나의 성경책의 지식도 늘어났다.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매주 가족 모두 같이 성경책을 공부하고 있다.

요한복음15장5절

【나(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해자는 이 사고 이후 책임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가족도 마찬가지로였다. 미움과 원망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은 성경책이 가르치고 있는 "무조건적 용서"를 따라서 그들

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골로새서3장12절~14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 주는 띠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포도나무의 집회에 오지 않겠냐고 권했다.

나와 가족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성경책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마음이 제각각이었던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 수 있게 된 것, 여러 가지 힘든 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된 것에 의해 가해자의 고뇌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역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왔다고 했고, 가해자의 아버지도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생명 보험금을 사고의 배상금으로 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병원까지 사죄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쫓아 낸 가해자의 할아버지는 당시 84 살이었다고 들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귀의 존재와 가해자 가족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후에 그들도 성경공부 모임에 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대한 보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성경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것뿐만 아닌 내 아버지의 소개로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서 가해자의 아버지도 일하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고를 계기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보통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고소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은 것 같다. 사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재판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게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사는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화를 냈지만 우리 가족은 성경책의 가르침을 따랐다.

또한 어머니는 병원까지 사죄하러 왔지만 쫓아 낸 가해자의 할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계속 뉘우치며 후회하고 계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화해할 기회를 주셨다. 어머니가 직접 만나서 사죄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의 할아버지께서는 "과분한 말씀이에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 가해자 가족과 우리 피해자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에 의해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다.

에베소서2장10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2장13절~15절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돌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하는 것에 움직이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실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살아가는 것에 절망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던 나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셨다.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계신다. 그러므로 몸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도 가족도 의사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이 세계와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9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나는 손으로 글자를 쓸 수 없다. 하지만 턱으로 자판을 조작할 수 있다. 나는 문장을 쓰는 것을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얻은 살아가는 힘, 용서하는 힘을 전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과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쓰려고 한다. 나의 신유(神癒,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기록으로.

그 날에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숨이 끊어졌다면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 주셨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이 간증은 일본에서 화제가 되어 2017년 1월 19일에 이 간증이 포함된 전자책으로, 2017년 9월 1일에 일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책을 출판했을 때에 일본의 신문사가 소개해 준 기사(2017.3.17)를 번역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성경책을 통해 배운 살아가는 희망

이와타시에 살고 있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대학생이 전자책을 출판.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것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만난 이와타 시 카미칸조우에 사는 사이토 료 씨(25)가

성경책을 공부해서 얻은 살아가는 희망을 테마로 책을 써서 전자책으로 출판했다. 목에서부터 신체 아랫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있는 료 씨. 인생의 여러 곳에서 마음 깊이 감동 받은 성경말씀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심경을 전했다. (와타나베 세이코 기자)

가해자를 용서하고 치유를 얻는다.

제목은「사이토 료의 살아가는 힘 목에서부터 신체 아랫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몸과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제가 전하고 싶은 것」. 료 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후쿠오카에 있는 사이버 대학교의 학생이다. 턱으로 컴퓨터 자판을 쳐서 문장을 쓴다. 전자책 출판은 대학교 졸업 과제로서 2 개월에 걸쳐 완성시켰다.

사고를 당한 것은 고등학교 2 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도중에 차에 치어 초등학생부터 야구만 해 온 생활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고 가해자에 대한 미움으로 자신도 가족도 마음이 평온한 순간이 없었다고 했다. 생활이 급변한 것은 고등학교의 야구부 선배가 권고해 준 성경책이었다.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상대를 용서하는 것에 의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치유를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알게 되어 눈물이 넘쳐흘렀다. 쓰여져 있던 성경책의 말씀은 위화감 없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 후에 그가 사는 곳에서 성경

책을 공부하는 크리스천 그룹인 「포도나무」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해자를 용서한 지금은 가해자 가족과 함께 성경책을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책을 통해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고 료 씨는 이야기했다.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가르침은 「전쟁이 없는 세계로 통한다」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 주길 바란다는 생각에 9월에는 일반 책으로 도쿄에 있는 문예사(文芸社)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성경책을 통해 집단 따돌림이나 성적인 소수자에 대해서 등 현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다. 책의 표지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류해 온 프로 야구팀 니혼 햄의 쿠리야마 히데키 감독님께서 흔쾌히 메시지를 써 주셨다.

책에는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성경말씀의 한 구절도 썼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언젠가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5년간 공부한 대학교를 3월 19일에 졸업한다. 료 씨는 「앞으로는 여러 기회를 통해 성경책에서 구원받았던 일이나 말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